

## 서평



### ■ 정치를 사유하라:

『사빠띠스따의 진화』 (갈무리, 2009)

김 은 중

"의견의 불일치는 세계의 성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존재에 관한 것이다"

- 알랭 바디우

"자신의 현재의 삶으로부터 단절하는 것, 무기력한 자본주의 세계의 확실성과 냉담성들로부터 단절하는 것은 단순히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의 급진적인 결정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급진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이 올바른 선택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몸을 던지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 미할리스 멘티니스

북미자유협정(NAFTA)의 발효를 계기로 멕시코가 '제1세계'로 진입하게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던 카를로

스 살리나스 대통령과 국제 로비스트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사파티스타<sup>3)</sup> 봉기가 발발한 지 올해로 15년이 넘었다. 그동안 사파티스타 봉기에 대해 학문적으로 많은 글들이 발표되었고, 비학문적 영역에서도 다양한 관심들이 표명되었다. 라틴 아메리카를 바라보는 국내의 시각이 끊임없이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가는 것처럼, 사파티스타 운동에 대한 국내외적 평가도 극명하게 갈린다. 한쪽 진영에서는 사파티스타 운동이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선포된 ‘역사의 종말’에 대한 도전이면서 반(反)자본주의 투쟁을 전 세계로 확산시킨 급진 정치의 진앙이라고 포상하고, 다른 쪽 진영에서는 급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의제를 제출하는 데도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찾잔 속의 폭풍’이었다고 폄하한다.

“절대적인 환호에서부터 공공연한 적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는 독해들의 과잉”도 문제지만,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EZLN) 부사령관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이데올로그 역할을 맡고 있는 마르크스를 문화적 아이콘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저널리즘적 흥행요소까지 가세하면서 사파티스타 운동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시급해지는 시점에서 두툼한 분량의 책 『사빠띠스따의 진화』가 출판되었다. 필자가 과문한 탓이겠지만 책의 저자는 미할리스 멘티니스(Mihalís Mentinís)라는 낯선 이름의 그리스 출신 학자로 아테네의 하트퍼드셔 대학에서 사회심리와 정치이론을 강의하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사빠띠스따의 진화』는 서문과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가 언급하듯이 책 전체는 이론적 건설과 비판적 해체의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1~2장에서는 치아파스에서 일어난 사건의

---

3) 이 글에서는 웹진 《트랜스라틴》의 편집 규정에 따라 책 제목을 제외한 모든 표기에서 격음을 사용한다.

연대기와 사파티스타 운동에 대한 이론적 독해를 소개하고 있고, 4장은 기존의 독해가 포착하지 못한 사파티스타 봉기의 새로움이 무엇이며 이것이 급진적 정치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봉기가 가져온 급진적 주체성들의 생산에 관해 분석하고 있다. 5장에서는 사파티스타 운동을 둘러싼 담론과 실천을 여러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6장에서는 급진적 주체성의 등장과 원주민의 사회적 상상성의 관계를 살핀다. 마지막 7장은 결론 부분이며 3장은 4장에서 다루어지는 이론적 작업들을 세우기 위한 사전 정지(整地) 작업에 할애되고 있다.

서평을 쓰기 위한 독서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한 부분은 2~4장까지였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는 이론적 독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별하는 일도 문제였지만, 특히 사파티스타 운동에 대한 저자의 독창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4장에서는 책장을 넘기는 일이 쉽지 않았다. 바디우 철학, 특히 타자의 윤리학을 중심으로 사파티스타 봉기에 대한 정치적 독해를 재해석하는 횡단비평(trans-critics)은 새로운 개념에 대한 숙고를 요구했다. 더구나 이 책의 목적이 새로운 이론의 생산이 아니라 혁명적 주체-되기라는 윤리적 입장에 있다는 저자의 강조점을 몸각화하는 작업이 어려웠음을 고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서평도 2~4장을 중심으로 서술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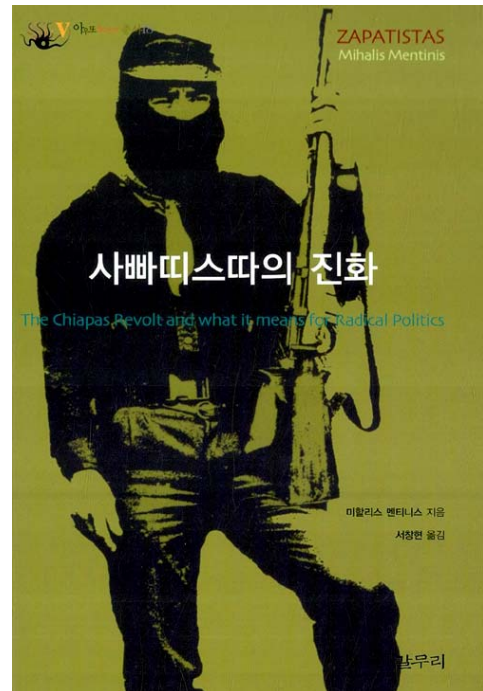
미할리스 멘티니스는 지금까지 사파티스타 운동이 주로 정치적 분석의 대상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이 갖는 보다 폭넓은 정치적 의의를 이해함으로써 비판의 균형을 잡아보려는 시도는 매우 적었으며 이론화 작업도 조야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이런 이유로 사파티스타에게는 ‘혁명가’와 ‘포스트모던 게릴라’라는 딱지와, 이와는 모순되는 ‘무장한 개량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라는 딱지가 나란히 붙어있다는 것이다. 여기

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파티스타 운동에 적대적인 진영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운동을 옹호하는 진영에서도 이 운동의 새로운 차원을 이론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저자는 사파티스타 독해가 보여주는 문제와 한계는 사파티스타 봉기를 기성의 이론들 내부에 포섭하기 때문이며, 그 결과 치아파스 봉기가 동시대의 다른 투쟁들과 무엇이 다른지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

한다. 사파티스타 봉기에 대한 이론들과 시각을 다루는 이 책의 2장에서 저자는 크게 네 가지 접근법—그람시주의적 접근, 라클라우와 무페의 담론 이론, 학문적인 자율주의적 마르크스주의 시각, 비학문적인 좌파와 급진적인 좌파적 접근—을 분석하고 있다. 네 가지 접근법을 크게 나누어 보면 비학문적인 좌파와 급진적인 좌파적 접근이 사파티스타 봉기를 전통적인 혁명 개념을 바탕으로 이상화하거나 비판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그람시주의적 접근과 라클라우와 무페의 담론 이론 그리고 학문적인 자율주의적 마르크스주의 관점은 혁명 개념보다는 민주주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사파티스타 봉기를 설명한다. 저자가 기존의 이론을 단순히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이론적 범주와 작업들을 개발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학문적 차원의 세 가지 접근법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람시는 헤게모니 이론을 통해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가 설정한 경제와 국가 사이의 위계를 허물고 지배계급이 하나의 국가



가 되고 헤게모니적으로 되는 것은 단순히 무력행사라는 수단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지적인 리더십에 의한 동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헤게모니를 사회 변형의 점진적인 기획을 위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분절하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그람시의 사유는 무장 투쟁 전략이 패배한 이후, 라틴 아메리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헤게모니 이론이 강조하는 사회적 정체성과 다원론이 자연스럽게 라틴아메리카 서발턴(subaltern) 그룹의 정치적 투쟁의 모델이 되고 사파티스타 운동을 이론화하는 데도 적용되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람시주의의 사파티스타 독해는 사파티스타 운동이 강조하는 “복종하면서 명령한다”(mandar obedeciendo)는 명제와 “권력을 갖는 다원론적이고 민주주의적이며 확장적인 국가”라는 명제가 합류하는 지점에 머문다.

라클라우와 무페의 담론 이론은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그람시주의적 비판을 출발점으로 삼아 ‘급진적이고 다원적인 민주주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라클라우와 무페는 후기조주의, 라캉의 정신분석학, 후기 비트겐슈타인 언어철학을 받아들여 외부 세계가 담론적으로만 구축되며 담론의 외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담론 이론을 주장했다. 라클라우와 무페의 주장에 따르면, 담론이란 차이의 흐름을 포획해서 하나의 중심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이지만, 단지 “떠다니는 기표들”의 의미를 부분적으로만 고정할 뿐이다. 따라서 “헤게모니는 고정되지 않은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고정된 계기들로 분절함으로써 하나의 담론을, 또는 담론들의 집합을 사회적 정향과 행동의 지배적 지평 속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헤게모니적 담론의 확장은 ‘적대의 현존’ 때문에 결코 완전히 도달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적대는 “담론들이 달성하려고 시도하는 사회의 최종적인 봉합”을 가로막

는 어떤 것이다. 사회적 적대에는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 데, 하나는 전체 사회적 공간을 두 개의 반대 진영으로 분할하는 ‘대중적 적대’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를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한 전투 지형으로 만드는 ‘민주적 적대’이다. 따라서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급진적이고 다원적인 민주주의를 위한 기획은 평등주의적 논리를 토대로 모든 영역들을 최대한 자율화하기 위한 투쟁과 다르지 않다. 라클라우와 무페의 담론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사파티스타 봉기는 급진적이고 다원적인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심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좋은 예증이다.

자율주의적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가 자본주의 착취의 메커니즘에만 맞춰져 있던 분석의 초점을 노동계급의 자율행위로 이동함으로써 자본의 논리에 포섭된 노동운동을 혁신하려는 노력이다. 자율주의적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따르면, 자신의 계급적 지위를 벗어나 무언가 다른 것이 되려고 하는 노동자들의 노력은 노동계급이 되지 않으려는 노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자기가치화’라는 대안적인 도식을 제기할 때 가능하다. 또한 ‘사회적 공장’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노동착취는 공장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계급이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자율주의적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자본의 확대는 사실상 라틴 아메리카 역사 전체를 특징짓는 과정”이며 “사파티스타의 경험은 주변적이거나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전지구적인 노동 재구성의 분리 불가능한 부분”이다.

자율주의적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노동의 자기가치화라는 관점에서 사파티스타 운동을 라틴아메리카 게릴라운동의 단순한 연속이라는 점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좌파 정당이나 도시의 노동조합들이 포기한 정치 공간을 채우고 민주주의, 토지, 문화적 자율성 등을 요구하는 개량주의적 운동으로 이해하는 주장 역시 논박

한다는 점에서 앞의 이론들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대표적인 예로 홀러웨이의 ‘권력을 잡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 것’에 대한 논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혁명적 범주로 이론화하는 작업을 들 수 있다. 사파티스타들이 ‘라칸돈정글 선언’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농업개혁에 대한, 또는 원주민들에게 더 관대한 정책들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자본의 확장 과 그것의 파괴적인 결과에 대한 근본적인 저항과 비판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인간의 “존엄성은 착취, 소외, 물신화에 대항하는 투쟁”이며 “인도적인 개념이 아니라 계급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자율주의적 마르크스주의 역시 기성의 이론을 사파티스타 봉기에 적용함으로써 사파티스타 봉기가 이러한 이론들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하나의 사례로 취급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람시주의적 접근이나 라클라우와 무페의 담론 이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저자가 주장하는 사파티스타 봉기의 새로움, 즉 총체적인 측면에서 사파티스타 봉기를 그것이 속한 지역성과 한계를 넘어서서 중대한 정치적 사건으로 시간과 공간 속으로 확대시키는 새로움은 무엇인가? 여기서 미할리스 멘티니스는 알랭 바디우의 ‘사건’ 개념과 상황주의자들의 ‘구축된 상황’ 개념을 연결시켜 ‘사건적 상황’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혁명적 주체성의 출현에 대한 논의로 나아간다. 저자가 바디우에게서 빌려오는 사건 개념은 “기존 사회를 지배하는 썸의 법칙이 누락시킨 공백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과정”이다. “쉴베르크의 음악은 그 이전의 음악적 상황을 지배하는 법칙을 깨는 음악적 공백(음악적으로 의미를 갖지 않던 음계)을 드러낸 사건이고, 파리코뮌은 그 이전의 정치에서 정치적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노동 계급(정치에서의 공백)이 스스로의 가치를 선언한 사건이다.” 그리

고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공백으로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 진리이다. 따라서 진리는 사건 이전에는 지식 체계에 의해 이름 붙여질 수 없는 명명(命名) 불가능한 것이다.

저자가 차용하는 또 하나의 개념인 구축된 상황이란 하나의 상황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시간의 어떤 계기의 모든 측면—배경에서부터 연루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에 이르기까지—이 집단적으로 연루됨을 의미한다. 즉 “구축된 상황은 그 구축 과정에서 개인의 완전한 연루를 요구하며 그리하여 스펙타클과 관객 사이의 분할이 해체”됨을 의미한다. 부연하자면 “구축된 상황들은 삶의 물질적 환경과 실천으로서의 행위 사이의 상호작용”을 뜻하며 “현실적인 환경의 불모성과 억압 그리고 지배적인 정치적·경제적 질서에 반대하는 선동과 논쟁을 유발시킨다.” 따라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순수한 주체성이 사회의 지배적 질서와 직접적으로 결합되는 계기들을 의미하는 구축된 상황은 “자본주의적인 조건들 하에서 스펙터클의 최면적인 힘, 달리 말해 이미지의 지배와 불능을 타파할 수 있는, 실재의 삶을 경험하고 생생한 세계의 구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다.” 그렇다면 구축된 상황이란 진리를 생산하는 사건에 실천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멘티니스가 사파티스타 봉기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조합한 개념인 사건적 상황은 사건 자체의 혁명성보다는 시간과 공간으로 확장되어 상황을 구축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드는 사건을 의미한다. 멘티니스는 프랑스 혁명이 모든 해방운동을 위한 지형을 열어젖혔다면, 이후의 운동들을 위한 불꽃을 일으킨 것은 아이티 혁명의 사건적 상황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사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봉기의 역사적 노선의 관점에서 러시아 10월 혁명과 쿠바 혁명도 동일한 관계로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적 상황이란 사



건을 특정한 조건들 및 맥락들에 특유한 언어로 번역해내는 중간 요소와 같은 무엇이다.”

이런 맥락에서 멘티니스는 사파티스타 봉기가 사건도 아니고 구축된 상황도 아닌 ‘유사 사건성’이라고 규정한다. “1994년 반란은 자본주의에 유효한 일격을 가하지 못하고 어찌면 단지 지역적 수준에서 그 발전을 지연시켰을 뿐이며, 어떠한 실재적인 혁명적인 억제책과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자본주의는 자신의 궤적을 계속하기” 때문에 사건이 아니다. 사건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적 관심사들과만 소통하는 구축된 상황 담론과 달리 “사파티스타 담론은 보편적인 호소력을 갖는, 그리고 지역적 조건들에 의존하지 않는, 아니 더욱 좋게는, 모든 억압 및 착취의 조건들에 적용되는 개념들 및 사상들(예컨대, 민주주의, 존엄, 많은 세계들이 어울리는 하나의 세계,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인류 등등)을 강조하는 또 다른 방향성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구축된 상황도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유사 사건성은 멘티니스가 사건 개념과 구축된 상황 개념 사이의 어딘가에 사파티스타 봉기를 위치시키기 위한 개념이며, 사파티스타 운동에 대한 무비판적 환호와 악의적 폄훼에 균형을 잡고 사건적 상황으로 규정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사파티스타와 그들의 사건적 상황의 중요성은 그들의 혁명 이론이나 자본주의에 대한 그들의 정치적 대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혁명적 정치를 위한 필요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혁명적 정치의 가능성을 명백히 한 것에 존재한다.”

기성의 이론이 사파티스타 봉기를 포섭하는 독해 방식을 살펴보고, 이들이 놓치고 있는 봉기의 새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사건적 상황 개념을 건설적인 이론의 축으로 제시한 뒤 멘티니스가 최종적으로 다다르는 지점은 혁명적 주체-되기의 문제이다. 앞에

서 말한 것처럼 진리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다. 사건은 기존의 사회 질서를 뒤흔들어 구멍을 만드는 어떤 것이며, 기존의 언어와 지식으로는 명명할 수 없는 결정 불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해, 기존 사회의 이해 지평을 벗어난 사태가 사건이다. 그리고 개입을 통해서 이러한 새로운 사태를 (소문자)진리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주체가 혁명적 주체이다. 즉 사건적 상황을 살아 있도록 만드는, 진리가 되도록 행동하는 충실성이 혁명적 주체-되기이다. 바디우 철학을 배경으로 멘티니스가 강조하는 주체-되기는 기존의 사회적 혁명을 대체하는 개체의 혁명이며 대문자 혁명이 아니라 소문자 혁명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존재 및 행위 방식을 창안하는 과정에 들어가기 위한 사건적 파열이 강제하기 전에는 주체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건, 진리 출현, 혁명, 주체-되기는 동시적이다.

사건에 대한 충실성, 즉 혁명적 주체-되기의 종류, 성격, 스타일은 그 사건에 참여한 정도, 사건과 이루는 거리와 근접성, 자본주의적 위계와 권력관계들 속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에 달려 있으며, 사건의 진앙으로부터 동심원적으로 확장된다. 멘티니스는 사파티스타 봉기라는 사건적 상황에 대한 첫 번째 주체-되기는 사파티스타 자신들이며, 두 번째 주체-되기는 사파티스타를 지원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사파티스타들의 주체-되기는 저항의 구체화를 통해서 가능했고, 사파티스타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주체-되기는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교활한 통제 메커니즘인 스펙터클과 단절”함으로써 가능하다.

멘티니스가 학계와 관련하여 언급하는 세 번째 주체-되기는 훨씬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들린다. “사파티스타에 관한 저작을 읽거나 그들에 대한 책을 쓰는 학자의 충실성은, 또는 사파티스타에 대한 논문을 쓰려고 마음먹은 학생의 충실성은 어떻게 표현

되며 물질화되는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파티스타 봉기의 중요성이 그들의 혁명 이론이나 자본주의에 대한 그들의 정치적 대안이 아니라, “봉기의 효과들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건적 방식으로 확장되고, 생명을 유지하며 혁명적 기획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다면, 멘티니스가 강조하는 학계의 주체-되기는 “학계의 급진적인 변형—다양한 정치 투쟁 형태들과 불가피하게 친밀하게 연결하게 될 변형—을 위한 집단적인 격려, 조직, 행동”이다. 다시 말해, 폴리페서의 행태에서 볼 수 있듯이 “학계를 자본주의적 기구로 내버려두고, 소위 주변부 그룹들을 이상화하고 물신화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학계와 정치행동 간의 관계를 전적으로 학계 바깥의 정치적 활동과의 연루를 조장”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멘티니스는 충실성 윤리와 주체성 그리고 정치 행위에 대한 혁신적 이해 방식을 제공하는 바디우 철학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두 가지 면에서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는 사건 이전에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바디우의 주장은 어떻게 사건이 존재하게 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충실성에 대한 바디우의 개념화가 방향성이 없는 정적인 과정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첫째 의문에 대한 대답으로 저자는 3장에서 논의한 카스토리아디스의 자율 기획을 제시한다. 그는 사건의 창조에 참여하거나 사건에 의해 포획되는 충실성의 주체가 그저 누군가일 수 없고 “자율 기획의 생성중인 역사적 주체”라고 말한다. 그리고 “자율 기획은 고대 그리스에서 일어났던 파열에 뿌리를 둔 사회적인 상상적 의의들이며, 타율과 사물의 제도화된 질서, 제정 권력을 부정하는 재귀적인 인간 활동의 상호 환원불가능한 극들로서의 민주주의와 철학의 창조 속에 체현되었다”는 카스토리아디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자율 기획과 더불어 네그리의 제헌 권력에 대해서 상세히

서술하고 있는 3장의 근본적인 주제가 바로 유럽 문명의 기원으로 인정되는 그리스부터 시작해 근대까지 계승된 ‘고도로 재귀적인’ 역사적 주체이다. 고도로 재귀적인 역사적 주체의 행동 원리인 자율 기획은 어떠한 ‘사회 바깥의’ 원천(신, 영웅, 보편적 이성, 역사발전의 법칙 등)에 대해서도 거부를 표명하고, “집단체가 자신과 자신의 활동을 문제 삼고, 자신을 명백히 그리고 재귀적으로 제도화하고 재제도화”하는 급진적 상상성이다. 그리고 역사적 주체의 급진적 상상성이 사회적 상상성과 연결된 것이 네그리의 제헌 권력(구성적 힘)이다.

충실성의 개념화에 내재하는 방향성의 상실에 대한 멘티니스의 답변은 전통적인 의미의 혁명이 내세웠던 폐쇄적 유토피아 기획으로 인해 진정한 혁명 사상 자체가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다분히 포스트모던적 정치학의 계량주의를 경계하려는 의도이다. 그리고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기존의 독해들이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잿더미에서 사회를 다시 만들 실제적인 사건을 위한 사파티스타의 상상성에 대한 평가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무능성을 이론화하려는 경향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윤리학에 중심을 둔 바디우의 철학이 미래적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탈근대 철학의 지배에 도전하여 다시금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서건 신학에 대한 암묵적인 준거”를 부정하고 이미 구성된 사물들의 질서를 파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5장에서 수행하는 사파티스타 운동에 대한 비판적 독해와 6장에서 다루는 원주민의 사회적 상상성에 대한 연구까지 더해지면 멘티니스의 작업은 지금까지 부분적이고 다분히 이분법적으로 접근했던 한계를 벗어나 사파티스타 운동에 대해 총체적 관점을 제공하는 훌륭한 지침서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 특히 정치와 철학

을 가로지르는 횡단비평은 사파티스타들의 창조적 반란을 이해하는 대담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우리의 사유를 자극한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근대성에 대한 저자의 언급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짚어야 할 문제가 있다. 멘티니스는 ‘사건 이전에 주체는 없다’는 바디우의 주장을 비판하고 그 대신 자율 기획 안에 혁명적인 활동을 위치시키는데, 그것은 “자율 기획이 언제나 기존의 질서에 대해 급진적인 물음을 던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급진적인 물음이 가져온 계보학적 파열의 계기를 유럽의 근대성 속에서 추적한다. “내가 치아파스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이해하기 위해 현저하게 유럽적 개념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사파티스타 담론이 자율 기획의 배치와 같이 유럽에 기원에 두고 있는 개념들 및 관념들을 토대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며, 그래서 치아파스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자율 기획을 유럽의 경계 너머로 확장시키는 것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이런 맥락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유럽중심적 근대성에 대한 탈근대적 비판이 반근대적인 근대적(anti-modern modern) 비판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되새겨야 한다. 고도로 재귀적인 역사적 주체라는 표현에는 하버마스나 기든스가 주장하는 성찰적 근대성이라는 유럽중심주의가 오버랩된다.

최근 라틴아메리카와 미국의 학자들 간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근대성/식민성 프로젝트는 유럽중심적 근대성이 은폐하고 있는 식민성을 드러냄으로써 유럽중심적 근대성을 재해석하고 있다. 타자에게 저질러진 억압과 착취의 식민성을 은폐한 고도로 재귀적인 역사적 주체는 이론적 허구다. 또한 사파티스타의 급진적 상상력이 이 운동의 영토적 경계를 넘어 자율 기획의 전지구적인 배치를 촉발했다고 높이 평가한다고 해도 재귀적 근대성을 경험하지 않은 사파티스타는 역사적 주체가 될 수 없으며, 헤겔

이 말했던 것처럼 보편사의 꼭두각시에 불과할 뿐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저자가 주장하는 “정치적·사회적 지형의 급진적 변형이라는 혁명 기획” 역시 유럽중심적 근대성에 대한 바디우의 비판—“지배적인 윤리적 이데올로기가 어떠한 해방적인 정치적 기획도, 사회적·정치적 변형에 대한 어떠한 진정한 시각도 결여하고 있다”—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한다. 유럽중심적 근대성에 대한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유럽중심적 근대성에 대한 대안은 유럽에서만 도출될 수 있다는 유럽중심주의가 『사빠띠스따의 진화』 에도 완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유럽중심적 근대성의 외부에서 유럽중심적 근대성을 사유하고, 이를 통해 사파티스타 운동을 재해석하는 작업이다.□

---

김은중 - 서울대학교 HK연구교수

---